

#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 종료보고서

2019년 7월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 종료보고서』(Bridge Rwanda Project Report)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독립 출판물로서,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의 협력 파트너인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와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이 출판물에 사용된 명칭과 소개된 자료 등은 특정 국가나 영토, 도시, 지역, 기관의 법적 지위 또는 그 국경이나 경계의 획정에 대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및 의견에 대해서는 아래 2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갖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교육부의 지원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공동 발간



### Bridge Rwanda Project Report 바로가기

본 보고서는 2019년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 종료보고서(Bridge Rwanda Project Report)의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원문은 위 QR 코드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개발협력본부 브릿지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우편번호 04536  
이메일 | [sdgs.kncu@unesco.or.kr](mailto:sdgs.kncu@unesco.or.kr)  
홈페이지 | [www.unesco.or.kr](http://www.unesco.or.kr)

한국어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21  
펴낸이 | 한경구  
감수 | 김승혜, 김지현, 서정아, 주준호  
번역 | 알바트로스 김용범  
디자인 | 보더랩 김기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 ED-2021-RP-4  
무단전재 및 무단복제를 금함

## 목차

<b>I. 서문</b>	<b>04</b>
1. 사업 개요	04
<b>II. 배경</b>	<b>05</b>
1. 국가 개요	05
2. 르완다 교육제도의 역사	05
3. 르완다의 교육 현황	06
4. 르완다의 교육 및 연수 제도	07
<b>III.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 개요</b>	<b>10</b>
1.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 소개	10
2.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의 구조	12
3. 르완다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소개	13
<b>IV. 성과</b>	<b>17</b>
1. 성과 1부	17
2. 성과 2부	20
<b>V. 프로젝트 기획, 지속가능성, 교훈</b>	<b>25</b>
1. 프로젝트의 운영과 관리	25
2. 지역사회의 참여, 지도력, 동기부여	25
3. 북남 협력	26
4. 종료 워크숍 결과	26
5. 교훈	28
<b>VI. 감사의 말씀</b>	<b>29</b>
<b>◆ 부록</b>	<b>31</b>
I. 브릿지 프로젝트 활동가 및 프로젝트 매니저 명단	32
II. 인터뷰 및 현장의 목소리	34







# I. 서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르완다에서 진행된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KNCU)와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CNRU)의 공동 프로젝트다.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는 유엔 산하의 여러 국제기구 속에서 독특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의 역량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들이 회원국 간 다자 협력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들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는 유네스코의 영향력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유네스코 헌장」과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헌장」에 따르면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는 유네스코, 회원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 그리고 해당 국가 산하의 모든 관련 협회 및 과학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파하고 유네스코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 역시 국가위원회의 의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는 2010년 양해각서를 체결해 힘을 합쳐 르완다의 청년과 성인들을 위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빈곤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의제 2030 (Global Agenda 2030)에도 기여했다.

## 1. 사업 개요

2000년 다카르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에서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모두를 위한 교육(EFA)’의 6개 목표를 명시한 다카르 행동계획(Dakar Framework for Action)을 채택했다.

이후 ‘모두를 위한 교육’ 이니셔티브는 초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축소했으며, 문해 및 기술교육 학습자의 수를 늘리는 등 교육개발 분야에 크게 기여해왔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양질의 문해교육과 기초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현장 중심의 노력을 개진해 왔다.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의 핵심 중 하나는 르완다 등 사하라 사막 이남의 개발도상국에 지역학습센터(CLC)를 설립하는 것이다. 지역학습센터는 해당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활동에 현지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의 중심이 된다.

2010년 10월,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는 르완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해당 각서는 이후 2014년 3월에 다시 갱신되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는 이 양해각서에 따라 유네스코의 교육 목표 달성에 공헌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특히 르완다의 EFA 국가조정기구가 인증하는 지역학습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유네스코의 모두를 위한 교육 이니셔티브를(이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II. 배경

## 1. 국가 개요

르완다는 중앙아프리카 대호수(Great Lakes) 인근의 내륙국으로, 면적은 약 2만 5000평방 킬로미터이며, 이 중 호수가 차지하는 면적이 1400평방 킬로미터에 달한다. 1994년 투치족 대량학살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후 르완다 사회는 아직도 이 비극적 사건이 남긴 심각한 영향을 해결하고 있으며, 동시에 르완다 아동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르완다 정부는 교육 프로젝트의 추진 및 여러 외국 기관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중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르완다는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탄자니아, 부룬디에 둘러싸여 있다. 가파른 산과 깊은 계곡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북서쪽에는 해발 1472m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호수인 키부(Kivu)호가 위치한다. 높은 고도로 인해 다른 적도 국가들보다 기온이 낮은 온화한 열대고산기후를 보인다.

르완다는 1884년 독일 제국에 의해 독일령 동아프리카의 일부로 식민화되었고, 이후 1916년 제1차 세계대전 중 벨기에에 다시 식민지화되는 역사를 거쳐 이후 1962년에 독립했다.

## 2. 르완다 교육제도의 역사

역사적으로 르완다의 전통적인 교육제도에는 성차별이 만연했다. 여성과 소녀의 교육기회는 제한되어 있었고, 성 고정관념도 뚜렷이 남아 있었다. 르완다의 교육은 주로 무형식교육의 형태로 가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훈련의 경우 주로 ‘이토레로(Itorerero)’라는 연수학교를 통해 실행되었다. 이토레로는 군사 기술, 금속 세공, 시, 바구니 만들기 등의 전통 기술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며 스포츠, 생활 기술(life skills) 지식, 문화적 가치, 그리고 사회의 가치 있는 일원이 되는 법 등에 대한 지식도 제공한다.

식민 정부는 서구의 학교 시스템을 도입했고, 선교사들이 교육을 담당했다. 당시 이루어졌던 교육의 목적은 기독교를 전파하고 식민 권력의 행정가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독립 후 교육 담당 부서를 포함하는 국가 행정부처가 설치되었고, 교육 총칙에 관련한 여러 법안이 도입되었다. 1979년과 1981년에는 교육 제도의 조정과 개혁이 있었지만, 의도되었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이 개혁이 식민지 시대의 과오를 바로잡는 데 실패하면서 르완다의 교육은 여전히 차별적일 뿐 아니라 르완다의 사회, 문화, 가치와도 동떨어진 채로 남게 되었다. 그 결과, 르완다 사회는 애국심을 상실하였고, 이는 1994년 투치족 대량 학살의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1994년 인종학살 이후 르완다가 독립하자, 유엔이 긴급사태를 선포하며 르완다의 교육제도도 개편을 맞았다. 현재에 이르러 교육은 국민 생활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르완다 정부가 2000년에 시작한 ‘비전 2020’에 명시된 원칙을 따라야 하며, 앞으로 르완다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교육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르완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도록 보장받을 수 있다. 교육과 훈련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모든 르완다 국민들 - 여성, 남성, 소녀, 소년 - 이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가치를 제공한다.
- 2) 제도 내 모든 수준에서 형식·비형식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인적자원 개발은 지속가능한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달성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이다. 교육과 훈련은 르완다의 발전 및 빈곤 감소의 핵심적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 3. 르완다의 교육 현황

르완다 정부는 르완다를 2020년까지 중위 소득 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르완다의 사회경제적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르완다의 가장 가치있는 자원, 즉 사람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다시 말해 르완다가 중위 소득 국가가 되려면 르완다 국민들이 노동 시장에서 경쟁하고 사회 및 정치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태도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에 르완다 교육부는 비문해 퇴치, 과학기술의 진흥, 비판적 사고와 긍정적인 가치 함양 등에 중점을 두고 양질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르완다 국민들을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숙련된 인적 자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르완다의 민족단결정부(Government of National Unity)는 교육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르완다의 근대사에서 파괴된 가치들을 교육을 통해 청년층 사이에 재건하고, 나아가 교육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복지를 이루기 위한 단합과 상호 지원을 이루어내야 함을 굳게 믿고 있다.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르완다도 교육 분야에서 무수한 도전 과제들을 안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는 너무 많고, 수업 자료는 불충분하고, 교사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일부 교사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르완다 정부는 국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교육 분권화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남녀 성인들과, 소녀, 소년들은 각자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활동과 프로젝트의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중앙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표준과 규범을 설정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고, 교육 과정을 만들고, 교육 자료를 승인하는 한편, 지방 정부는 정책 집행, 지역 단위 교육 활동 계획 및 후속 조치, 그리고 학교의 일반 행정을 책임진다.

르완다는 모두를 위한 교육(EFA), 교육의 성별 격차 축소, 교육에서의 정보통신기술 이용과 같은 국제적인 교육 개발 목표에 전념하고 있으며, 동시에 성과 기반 교육, 학습 성취도의 지속적 모니터링, 교육 후원자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 관계 구축 같은 지역적 목표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교육과 훈련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르완다는 이러한 세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이점을 인식하고 있다.

### 4. 르완다의 교육 및 연수 제도

르완다 인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르완다 인구는 2013/2014년 통합가구환경조사(EICV4)에서는 1140만명, 2016/2017년 통합가구환경조사(EICV5)에서는 1190만 명으로 조사되어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르완다의 인구를 살펴보자면 중간연령이 18세, 30세 미만 인구가 71%로, 기본적으로 젊은 인구 구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르완다에서 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을 시사한다.

르완다의 교육 시스템은 취학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의 총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중고등 교육은 모두 직업교육훈련(TVET)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 취학전 교육

3-6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3년간 이루어진다.

#### 초등교육

6년제로, 공식적인 해당 학령은 7-12세이다. 중등교육에 대비코자 핵심 문해 능력과 수리 능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초등교육은 전기 중학교 진학 자격을 결정하는 국가시험으로 완료된다.

#### 중등교육

역시 6년제로, 공식적인 해당 학령은 13-18세이다. 이 과정은 전기 중등(첫 3년) 과정과 후기 중등(마지막 3년) 과정으로 나뉘는데, 두 과정 모두 국가시험으로 완료되고, 이후 후기 중등교육 진학, 중등교육 졸업, 또는 고등교육 진학이 결정된다. 후기 중등교육 수준에서, 학생들은 일반 중등교육 학교와 직업 중등교육학교(TSS), 그리고 사범학교(TTC) 입학할 수 있다.

#### 고등교육

학생들은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거나 일련의 기술 또는 직업을 얻을 수 있다. 현재 학사과정은 취득까지 4년이 소요된다.

#### i. 영유아보육 및 발달(ECCD)

르완다 정부는 유아기가 인간 발달과 평생학습에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됨을 인식하고 있다. 취학전 교육은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3년간 제공된다.

전지구적으로, 영유아 보육 및 발달(ECCD)의 목표는 6세 이하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영유아기 발달을 지원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주요 목표는 모든 수혜자가 명확하고,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양질의 영유아기 발달 서비스를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르완다의 영유아발달(ECD) 교육 정책은 양성가족진흥부가 조정하고, 국가 영유아발달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부처 장관들(주로 교육부, 보건부, 지방행정부, 농업부)이 시행한다.



르완다의 아동 인구는 5백만 명으로, 그 중 17%가 영유아발달 서비스의 수혜대상이다. 2016년 이후 르완다의 영유아발달 정책에 따르면, 영유아발달 서비스는 아직 수혜대상 인구 모두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

## ii. 성인문해교육

문해력은 교육권의 핵심으로, 교육의 민주화는 문해의 민주화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문해력은 또한 자율학습과 평생학습의 문을 열어주기도 한다. 이러한 문해의 권리에는 모국어로 학습할 권리가 포함된다.

르완다 정부는 교육부와 성인교육국을 통해 전 인구의 문해상태 도달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여러 행위자들과 협력해 성인 교육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성인 기초교육은 빈곤 감소,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사회 참여, 시민의식 확립, 가족 계획 및 지역사회 개발, 평생학습 및 역동적인 문해환경 구축과 같은 국가적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으로, 문해력은 국가 건설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2018년에 발표된 르완다의 2016/2017년 통합가구환경조사(EICV5)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의 문해율은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키갈리(Kigali) 시가 88%로 가장 높은 문해율을 나타낸 반면, 서부 주의 문해율은 69%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 분류해 살펴보면 남성의 문해율은 78%, 여성의 문해율은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더 젊은 연령 집단(15-24세)에서는 여성의 문해율이 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의 경우 84%).<sup>1</sup>

## iii. 직업교육훈련(TVET)

르완다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에 관련한 정책과 조율을 책임지며, 르완다 인력개발청(WDA)은 전반적인 직업교육훈련의 실행을 맡고 있다. 르완다의 직업교육훈련은 청년 및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생산성 있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며, 재직자에게도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직업교육훈련 기관은 직업훈련센터(VTC), 중등기술학교(TSS)와 과학기술전문학교(Polytechnic)로 나누어진다. 현재 르완다에는 179개의 직업훈련센터, 199개의 중등기술학교,

16개의 과학기술전문학교가 있다. 르완다는 수년 내에 중등기술학교를 직업훈련센터로 통합할 계획이다.<sup>2</sup>

르완다는 지리적, 경제적, 인구학적으로 그 다양성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특징과 적합성을 향상시키고 21세기 시장 경제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도전에 맞서야 한다. 르완다는 인적자원 개발의 실행에 있어 그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교육훈련과 일관된 전략을 정립해야 하며, 직업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 계획이 르완다의 경제 개발 비전에 특히 중요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소녀와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등록은 제한되어 왔다. 그 이유로는 1) 여성의 취업 기회를 저해하는 일련의 장애물(자격 미달, 상황적 요인, 제도적 장벽 등), 2) 직업교육훈련의 사회적 구조와 구획화된 노동 시장, 그리고 3) 성역할, 성고정관념 등에 관한 사회적 가치 및 신념의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들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이 다른 젠더 규범으로 인해 르완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

전국적으로 기술과정에 등록된 인구의 비율은 2013/2014년 통합가구환경조사(EICV4) 당시 2.5포인트에서 2016/2017년 조사(EICV5)에서 1.8포인트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기술직업과정 학습자 비율은 농촌 지역(1.5%)보다 도시(3%)에서 더 높고, 다른 곳보다 키갈리시에서 더 높다(3%). 키갈리시 직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은 약간의 감소세를 보여, EICV4당시엔 4%였으나 EICV5에서는 3%로 나타났다. 르완다 전역에서 유의미한 성별 격차는 관찰되지 않았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 인구의 직업 기술교육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이다(두 EICV 모두에서 약 2%). 20-24세 인구가 가장 높은 직업기술학교 참석률(4%)을 나타냈지만, 25-29세와 30세 이상을 포함한 좀 더 나이든 집단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전자는 EICV4당시 5%에서 EICV5에서 3%로 감소했고, 후자는 EICV4당시 3%에서 EICV5에서 1%로 감소했다). 이는 직업교육 접근성이 나이든 집단보다 젊은 집단에서 더 일반적임을 시사한다.

1) 통합가구환경조사 (2018. 12.), 2016-17 교육 주제별 보고서

2) 노동개발청 교육과정개발관 람시라보 아마블레 인터뷰 중 (2017.9.5.)



# III.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 개요

## 1.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 소개

### i. 근거

문해력과 수리력은 의사소통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식을 배우고 전달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이다. 따라서, 문해력과 수리력은 무지와 빈곤에 맞서 싸우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형태의 교육(형식교육 및 비형식교육) 개발은 빈곤과 아동 사망률을 줄이고, 인구 증가를 억제하며, 양성 평등을 이루고, 르완다인 모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합을 보장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문해력은 개방적 사고, 손쉬운 정보 접근, 새로운 지식 및 정보통신기술, 의사소통 역량 습득, 읽기와 쓰기로 이어져 세계에 대한 폭넓은 개방성을 가져온다. 르완다 정부는 그 달성의 어려움을 감안해 비문해 퇴치 캠페인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으로 삼았다. 그러나 성인문해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노력만으로 비문해 퇴치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므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은 르완다의 농촌 지역에 다목적 지역학습센터(CLC)를 설립해 르완다의 비형식교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은 2010년 르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8개국에서 시작되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늘려 '모두를 위한 교육(EFA)'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을 달성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프로그램은 비형식교육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인 영유아발달(ECD), 성인 문해, 직업교육훈련(TVET)에 중점을 둔다. 사업 협력국의 이해관계자는 주로 해당 지역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정부 관료 및 현지 관계자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력해 국내 브릿지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를 포함한 각 프로젝트는 주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브릿지 국가위원회의 감독을 받아 정부 정책 및 전략에 일치하고 현지 상황에 적합하도록 관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의 주요 활동은 교사 연수, 교재 공급, 그리고 부게세라(Bugesera) 지역 마양제(Mayangye) 지구의 우루무리(Urumuri)지역학습센터 건립에 필요한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이루어졌다.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는 르완다 개발계획 및 교육 전략에 일치하고, 르완다가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전략적 협력국 중 하나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 ii. 목적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EFA 이니셔티브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달성에 기여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로젝트는 르완다 현장에서 비형식교육 및 훈련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르완다의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는데, 프로젝트의 수혜자는 아동과 성인으로, 아동은 영유아발달 수업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에 준비하고, 형식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은 성인문해 및 직업훈련 수업을 제공받는다.

### iii. 원칙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는 '지속가능성, 주인의식, 자립'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해당 원칙은 2016년 말라위 릴롱웨에서 여러 파트너국 이해 관계자들의 참석 아래 개최되었던 '브릿지 아프리카 컨퍼런스(Bridge Africa Conference)'에서 채택되었다. 이 원칙에 따라,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는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의 운영에 관련된 정부기관과 긴밀히 협력했으며, 동시에 지역사회가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UCLC)의 운영에 있어 주도권을 갖는 접근 방식을 택하기도 했다.

따라서, 모든 활동의 계획과 실행은 르완다의 국가 교육전략에 따른다. 또한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들은 기획부터 모니터링,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지역사회를 참여시켜 그 자립심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 iv. 기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는 2010년 10월 5일 양해각서에서 서명했다.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의 주요 단계는 2014년 3월에 시작해 5년간 운영되었으며, 이후 5년이 연장되어 2016년부터는 릴롱웨 선언(Lilongwe Declaration)에 따라 운영되었다. 2019년 3월 협력 프로젝트가 만료되면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의 파트너십 및 양해각서도 종료되었고, 현재는 현지의 이해관계자들이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 2.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의 구조

### i. 교육구조와 브릿지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 정부 부처
- 사무소
- 기관
- 부서
-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역할과 의무	비고
교육부	- 영유아발달, 직업교육훈련, 문해교육 관련 정책 제언 - 프로젝트 수행 촉진 - 프로젝트 수행 파트너 연결	
전국 영유아발달 프로그램(NECDP)	- 영유아발달 관련 정책 제언 - 프로젝트 수행 파트너 연결	양성가족진흥부 (MIGEPROF) 직접 관리
르완다교육위원회 (REB)	- 문해교육 정책 제언 - 프로젝트 수행 촉진	
인력개발청(WDA)	- 직업교육훈련 관련 정책 제언 - 프로젝트 수행 촉진	
부게세라(Bugesera) 지역 정부	-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프로그램 수행 촉진 - 지역학습센터 관리와 운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	

## 3. 르완다의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소개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 건립 프로젝트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브릿지 르완다 지역학습센터 건립 및 영유아교육,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 수업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사업 목표는 부게세라 지역,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의 협력을 통한 마양제 지구의 개발이었다.

프로젝트의 두 가지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 (1)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 건설 및 장비 조달 완료;
- (2)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의 영구적 운영

### i. 지역학습센터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

- 브릿지 모델 지역학습센터 건설 준비
- 지역학습센터 건설 전 임시 영유아발달 수업 운영, 건설 완료 후 브릿지 모델 지역학습센터 개관
- 브릿지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주인의식 강화

### ii. 지역학습센터 기본 설계와 청사진

- 한국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설계





### iii. 임시 영유아발달센터 개관

과거 마양제구역 가감바지구 카부무마을의 학부모들이 영유아발달센터를 개설한 적이 있었지만, 열악한 수업환경 및 보육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웠다. 카부무 영유아발달센터는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보육원으로, 25명의 아동이 등록되어 있었고, 학부모들은 보육교사의 급여로 학기당 4500 르완다 프랑(RWF)을 지불해야 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그리고 부게세라 지역은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첫 협력사제로 카부무 영유아발달센터를 임시 브릿지 지역학습센터로 지정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인적 지원을 제공했다. 동 임시 브릿지 지역학습센터는 2017년 5월 23일 개소해 지역 관계자 및 학부모와 함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카부무 마을 위원회에서 실시한 수요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임시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영유아발달수업의 예비 운영을 위한 사업 개요와 예산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7월에는 영유아발달수업 보육교사 연수가 실시되었다. 2017년 8월, 임시 브릿지 지역학습센터에 164명의 아동이 등록하였고, 이후 2017년 9월에는 등록 아동이 208명으로 늘어났다.

### iv. 임시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워크숍

2017년 6월 15일 임시 브릿지 지역학습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은 카부무 마을 주민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칼릭스테 칼리사(Callixte Kalisa)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교육부 부서장과 앨버트 니이제나(Albert Niyigena) 부게라 지역 교육담당관이 진행했다. 워크숍에서 진행자들은 브릿지 지역학습센터의 목적과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각 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지역사회에서 지도자 경험이 있고 평판이 좋은 위원 8인을 선출했다.

선정된 위원들은 매주 회의를 열어 임시 브릿지 학습센터와 관련된 안건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지역학습센터, 특히 영유아발달수업을 널리 알리고 유지하는데 책임이 있음에 동의했다. 참가자들은 또한 마을회의에서 보육교사 연수 소식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학력과 지역사회 내 평판을 참고해 보육교사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에 합의했다.

### v. 영유아발달 보육교사 대상 훈련 워크숍

2017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임시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보육교사 연수 및 채용을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영유아발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임부토 재단(Imbuto Foundation)은 교육생 11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동 연수는 다음 두 매뉴얼을 이용해 진행되었다: (1) 임부토 재단, 유니세프, 그리고 르완다 교육위원회가 취학전 교육과정으로 개발한 「영유아발달 필수 패키지」(Essential Package of Early Child Development)와 「가족 서비스: 육아 프로그램: 훈련 매뉴얼」(Family Services: A Parenting Programme: Training Manual). 연수 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 6명의 참가자만 보육교사로 임용되었다.



임시 브릿지 영유아발달 수업 시작 후, 보육교사들은 이전 워크숍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르완다 교육위원회의 취학전 교육 과정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서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후속 워크숍을 제안했다. 이에 2017년 11월 임부토 재단의 지원으로 보육교사 6명이 후속 워크숍을 수강했다.

#### vi. 임시 지역학습센터에 영유아발달 수업을 위한 기초 장비와 교재 제공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직원이 처음 임시 지역학습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25명의 아동이 책상 10개에 모여 앉아 영유아발달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후 카부무 마을 지도자는 최소 80명의 아동이 등록할 것이라 예상해, 어린이용 책상 20개와 교탁 및 교사용 책상 2세트를 구입했다. 유진 가하마니(Eugene Gahamanyi) 마양제지구 교육담당관이 해당 가구 조달을 지원했고, 이마쿨리 케이타르(Immaculee Kayitare) 당시 양성가족진흥부 영유아발달 기술보조관이 '영유아발달 최소 기준'에 따라 영유아발달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필수 교재 목록을 작성했다. 이 목록을 바탕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임부토 재단이 소개한 영유아발달 제품 공급업체로부터 위생용품, 도서, 블록, 문구류를 구입했다.

#### vii. 영유아발달 서비스의 제공

임시 브릿지 영유아발달 프로그램은 르완다 학제로 3학기가 시작되는 2017년 8월 14일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교육의 수요는 교실 수용 좌석과 구입한 장비의 규모를 훨씬 능가해, 개강일에는 예상 학생수였던 80명을 훌쩍 뛰어넘은 164명이 등록했고, 그 다음 달에는 그 수가 208명으로 늘었다.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의 영유아발달 프로그램 등록 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는데, 우선 카부무 마을 출신의 3세에서 6세 사이의 아동을 선발했고, 이후 나머지 인원은 카부무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에 거주하는 같은 연령대의 아동들로 선발했다. 2017년 11월 22일에는 보육교사, 부모, 그리고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한자리에 모여 검토 회의를 가졌다. 회의 결과, 3세 이하와 6세 이상의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학생 정원을 120명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고, 2018년 1학기 시작일부터는 투명성 보장을 목적으로 학부모들도 학생의 출생증명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 IV. 성과

### 1. 성과 1부

#### i.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의 배경: 2010-2019년 주요 활동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은 2010년 레소토, 말라위, 르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짐바브웨 등 총 아프리카 6개국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2013년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 영유아기 발달, (2) 아동, 청소년 및 성인 대상 문해교육, (3) 직업교육훈련의 세 가지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지역학습센터 건설, 문해학습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의 교육, 학습자료 배포 등을 꼽을 수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0년부터 르완다에서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와 협력해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2016년에는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던 교육 지원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게세라 구역에 지역학습센터를 설립하였다.

부게세라 구역에 지역학습센터가 건설되기 전,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는 르완다 오순절 교회연합(ADPR)과 재림교 개발 및 구호기관(ADRA)과 협력해 성인문해 교실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2015년에는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그리고 재림교 개발 및 구호 기관이 성인문해를 주제로 키라무루지(Kiramuruzi) 지구 관계자들과 협력해 활동했다. 키라무루지 지구의 프로젝트는 다음 세 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되었다:

#### 1) 준비 모임

재림교 개발 및 구호기관 본부에서 총 네 차례의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키라무루지 지구 관계자를 비롯해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표가 참석해, 강사 교육, 성공적 연수를 위한 필요 시설, 그리고 교육생에게 배포할 교재 비용 등을 논의했다.

#### 2) 키라무루지 지구의 교사연수 워크숍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재정 지원으로 부게세라(Bugesera), 부레라(Burera), 기사가라(Gisagara) 3개 구역의 문해학습 퍼실리테이터를 위한 3주간의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연수 진행자는 르완다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성인 문해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동 연수의 목표는 성인 문해학습 퍼실리테이터의 성인문해 교과과정과 실행 전략에 관한 이해 증진이었다.

총 153명의 성인학습 촉진자가 연수를 수료했다.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는 수업을 더 수월하고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3개의 개별/연속 세션으로 연수를 진행하였다. 연수는 2016년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니야마타(Nyamata)에서, 2016년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부레라(Burera)에서,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기사가라(Gisagara)에서 진행되었다. 세 지역에서 진행된 연수 내용은 동일했다.



연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성인대상 수업 준비 역량 함양
- 학습자 매뉴얼을 기반으로 수업 역량 개발
- 학습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생활 기술(life skills) 수업 역량 개발
- 텃밭 가꾸기, 일렬로 작물 심기, 개량 종자 선택, 작물 윤작, 뿌리 덮기, 토양 침식 제어, 분뇨 사용 및 혼농임업과 같은 농업 개선을 위한 기능적 문해 기술 수업 역량 개발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재림교 개발 및 구호기관과 협력해 교사 21명을 대상으로 성인기능문해(FAL) 훈련을 실시했고, 르완다 교육위원회가 작성한 교과서 1,800부(교사용 200부, 학생용 1,600부)를 인쇄했다.

연수는 6일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그 중 4일은 연수, 2일은 검토에 할애되었다.

교사연수는 아래 분야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 보건 분야
- 보건위생 분야
- 시민생활
- 성(性) 분야
- 기초 기술
- 소득창출 활동

재교육 연수는 문해교사가 퍼실리테이터 지침에서 제시한 질문과 활동을 경험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 지침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재교육 연수의 목표는 문해 교사가 성인기능문해 교과서를 사용해 수업을 계획하고, 배운 내용을 검토하고, 교수법에 대해 논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3) 교과서 배부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과서 배포 지원을 통해 학교 도서관에 장서를 공급하고 성인 학습자들의 독서 문화를 조성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키라무루지 지구의 교사와 학생은 700권의 교과서를 수령할 수 있었다. 가치보(Gatsibo)구역도 1,100권의 교과서를 기증받아 산하 지구들에 배포했다. 배포 소식은 키라무루지 지구가 위치한 동부 주와 기타 여러 지역에 시청자를 둔 라디오 이주바(Radio Izuba)에서 방송되었다.



① 교육 전문가가 제공하는 연수 워크숍  
② 부가세리지역 교사연수 워크숍 집단 토의



## 2. 성과 2부 (르완다 지역학습센터 건설 모델)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의 연관성

한국과 르완다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교육 협력 프로젝트로 시행된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SDG 4)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었다. SDG 4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추구하고, 10개의 세부 목표로 나누어져 있으며, 연령, 성별,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보장한다.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의 교육 활동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기둥은 영유아발달로, SDG 세부목표 4.2에 관련한 르완다 농촌 지역의 영유아 발달 교육 및 취학전 교육이다.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가 세워지기 이전에, 원래 카부무 마을에는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소규모의 영유아발달 서비스 시설만 있었다. 해당 시설에서는 20명의 아동들만이 기초적인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들을 제외한 마을 아동의 대부분은 이 소규모 사립 교육 시설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다른 영유아발달 교육을 받을 가능성 또한 희박했다. 게다가 부모님이 직장에 다니는 어린 아동이 매일 학교에 다니는 것도 불가능했다. 카부무 마을 임시 영유아발달 교육시설이 개소한 후, 120명이 넘는 3~6세 아동들이 매일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고 취학전 교육을 받으며 평생의 교육 관련 삶과 커리어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의 영유아발달 수업은 큰 성공과 인기를 얻었다.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 교육의 두 번째 기둥은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 4.4로 연결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관련 기술 습득에 대한 지원이다. 신규 지역학습센터는 매주 직업교육훈련 수업을 실시했다. 앞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는 카부무 마을에서 비공식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역 내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직업교육훈련을 조사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재단 수업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답했었다. 동아프리카 국가들, 특히 르완다는 아름다운 고품질의 '이키텩게(ikitege)'로 유명하며, 정부도 '이키텩게'의 경제적 잠재력을 인정하고 르완다의 섬유 및 재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녀를 막론하고 많은 르완다 사람들에게 재단사로 일하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의 원천이 되며, 새롭고 혁신적인 천을 생산하는 것은 르완다산 제품과 예술의 홍보에 기여하고 나아가 그 국제적 명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졸업생들은 습득한 역량과 기술로 재단사로 취직하거나, 소규모 창업을 시작하거나, 학우들과 사업체를 만들 수 있었다.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 4.6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성취'하기 위해,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 교육 프로그램의 세 번째 분야는 성인 문해력에 중점을 두었다. 1994년 벌어졌던 투치족 대량 학살로 인해 많은 르완다 청년들이 문해력과 수리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들은 가족의 생존을 보장해야 했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시간도, 수단도 없었으며, 그 결과 읽기나 쓰기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저소득 직종에만 종사해왔다. 일에 매여 있어 더 나은 직업을 찾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 기회의 부족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의 주간 성인문해 수업은 르완다 청년에게 읽기, 쓰기, 수리 등에 대한 기본 교육을 제공해 이후의 교육적 성취와 더 나은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는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 4.5에 따라, 센터는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를 지탱하는 세 기둥은 남녀 모두에게 열려 있다.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의 모니터링에서도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의 발전과 이를 통해 카부무 마을과 부게세라 구역민에게 제공되는 훌륭한 기회들을 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래는 부게세라 구역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의 공식 개소식에 참석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사진이다.

### i. 2018년 10월 23일 공식 개관한 우루무리 학습센터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 공식 개소식에 참석한 주 르완다 대한민국 대사(가운데), 르완다 과학기술전문학교 부총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왼쪽), 부게세라 시장,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사무총장(오른쪽)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의 공식 개소식에는 김응중 주 르완다 대한민국 대사, 르완다 과학기술전문학교 부총장이자 교육부 대표인 제임스 가숨바 교수,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알버트 무테사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사무총장, 그리고 리차드 무타바지 부게세라 시장이 참석했다.





① 김응중 대한민국 대사의 축사  
 ②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③ 알버트 무테사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사무총장

개소식 연설에서 김응중 대사는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 르완다와 한국 간의 내실 있는 관계를 강조했다. 김 대사는 “모두를 위한 교육”은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도구로, 소외된 지역사회는 이를 통해 무지에 맞서 싸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교육이 한국의 발전에 필수적이었다고 설명하며 한국과 르완다 양국 간의 지속적인 지식 공유를 희망했고, 전문 기술과 지식을 전파하고 아동 교육의 굳건한 초기 기반을 제공했으며 성인 학습자 문해력 향상에도 이바지한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의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두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연설에서 한 나라의 교육 발전은 해당국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신념을 피력했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그리고 부계세라 구 간의 협력이 소외된 르완다 지역사회의 학습 기회를 확대할 뿐 아니라 르완다와 한국 간 우정의 지속에도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또한 지역학습센터의 건설이 양국의 성공적인 협력과 긴밀한 우정의 산물임을 강조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알버트 무테사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사무총장은 개소식 참석자들에게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동반자적 관계는 2010년에 시작되었음을 상기시켰다. 이 오랜 협력관계는 르완다 국가정책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모두를 위한 교육의 실행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무테사 사무총장은 한국과 르완다 유네스코 국가위원회가 읽기와 쓰기 능력이 부족한 아동 및 성인의 교육을 지원하고, 학습자가 기초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가 세워졌고, 강사와 교재가 제공되었으며, 현재 120명의 아동이 적절한 학습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무테사 사무총장은 학교가 곧 현대식 전기 재봉틀을 갖추게 될 것이며, 학생들이 기초 능력을 습득하고 일자리와 사업체를 창출하도록 지원해 향후 르완다산 제품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또한 학교 건설 비용이 미화 24만 달러였다고 언급하며, 교육을 우선순위에 올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르완다의 굿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읽기와 쓰기 능력이 부족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 프로젝트가 무지와 싸우는 도구라고 말했다. 그들 중 일부는 상인으로, 읽고 쓸 줄 모르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에도 장애를 초래했었다고 밝혔다. 지역 지도자로 출마하고 싶었지만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해 자격 미달로 출마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부계세라에서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1만 824명에 달하며, 유치원은 11곳 밖에 없다.





제임스 가숨바 박사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제임스 가숨바 박사는 모든 협력기관의 멋진 이니셔티브와 그 성취에 대한 축하를 전했다. 그는 또한 지역 주민들이 지역학습센터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센터가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재단 기술 및 문해력을 습득하고 읽기, 쓰기, 배움을 문화로서 실천할 것을 권고했다.

## V. 프로젝트 기획, 지속가능성, 교훈

### 1. 프로젝트의 운영과 관리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의 운영이 부게세라 구역으로 이관된 후, 지역사회는 센터 운영을 위해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센터는 영유아발달 수업, 성인문해 수업, 재단 수업을 제공한다. 세 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국가 교과과정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교육부가 개발한 교재를 사용한다.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는 학기 당 최소 두 차례의 회의를 열어 센터 운영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의장
- 공동의장
- 학부모 2인
- 고문 2인
- 센터 코디네이터
- 교사 2인
- 학생 2인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 감사위원회도 별도로 존재하는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지구 교육담당관
- 현지 지구 사무국장
- 학부모 2인
- 센터 코디네이터

### 2. 지역사회의 참여, 지도력, 동기부여

부게세라 구역 마양제 지구는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처음으로 마양제를 방문했을 때에는 학부모들이 교육 활동을 위해 직접 세운 작은 건물 하나밖에 찾아볼 수 없었는데,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그 건물은 교육 활동에 적합하지도 않았다. 브릿지 학습센터 부지 선정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게세라 구역은 마양제 지구의 카부무 마을 부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 후, 지역 주민들은 영유아발달, 성인문해,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자신들의 지역사회뿐 아니라 이웃 지구들까지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변화해나가게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3자간 양해각서에 따라 부게세라 지역은 마양제 지역학습센터 설립을 위해 건설사를 고용했고,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부게세라 지역과 마양제 지구는 부지 건설 및 녹지화를 위해 ‘우무간다(Umuganda)’라는 지역 프로젝트를 함께 출범시켜 지역학습센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했다.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의 지원 덕분에,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는 영유아발달 교실 3개, 사무실 건물 1동, 성인문해 교실 2개, 직업교육훈련/재단 교실 2개, 화장실 2개, 영유아 놀이터 1개,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및 성인 문해활동을 위한 야외 공간까지 갖추게 되었다. 현재는 254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습을 위해 센터를 방문한다. 또한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는 교사 외에도 마양제 마을 출신 지원 인력(보안 및 청소 직원 등)을 고용해 마양제 지역사회가 센터의 자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 3. 북남 협력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0년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을 시작해 아프리카 지역의 ‘모두를 위한 교육(EFA)’ 이니셔티브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했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양질의 비형식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현장 차원의 노력 증진이었다. 프로그램의 핵심 중 하나는 지역학습센터의 건립으로, 이렇게 건립된 지역학습센터는 이후 지역 주민의 교육 활동 참여를 증진하는 중심지로 기능하며 소속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 사회적 변화에서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널리 알린 대한민국의 정책 모범 사례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에 세운 지역학습센터의 발전을 통해 브릿지 프로그램은 아동, 청소년, 성인의 학습 기회를 증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2010년 10월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는 르완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후 2014년 3월 해당 각서를 갱신하였다. 양측은 유네스코의 ‘모두를 위한 교육’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르완다의 모두를 위한 교육 국가 조정국(Rwanda’s EFA National Coordination)이 인증한 지역학습센터를 중점적으로 설립 및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 4. 종료 워크숍 결과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원으로 부게세라에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가 성공적으로 건립된 후, 2019년 2월 25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 참여를 마무리하기 위한 종료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워크숍에서 부게세라 지역 관계자들과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는 마양제 대표자들이 프로젝트의 수혜자로서 느낀 점, 기대하는 바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었으며, 지역사회가 앞으로도 지역학습센터 시설을 잘 운영해나가며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센터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했다.

- ① 워크숍 전체회의의 참가자들
- ② 청중 앞에서 발언하는 알베트 무테사 사무총장
- ③ 폐회 발언을 하는 이베티 이마니쉬웨 부시장



워크숍 폐회사에서,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사무총장은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가능케 해준 모든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에 진심어린 감사를 표했다. 그는 또한 지역학습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헌신해준 부게세라 구역에 감사의 말을 건네며 부시장에게 공식 폐회 연설을 요청했다.

이베티 이마니쉬웨(Yvette Imanishimwe) 부게세라 사회부 부시장은 폐회 연설에서 지역학습센터 설립지로 부게세라를 선택한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에 감사를 표하며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가 지역사회에 부가가치를 가져오고 지역사회 내 교육의 질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밝혔다. 부시장은 또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의 단계적인 철수 후에도 구역차원에서 지역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며 마양제 지역사회에도 센터의 관리를 책임질 것을 요청했다. 그녀는 특히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에 대한

지역사회의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그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센터에서 제공했던 전문 기술과 지식을 이용해 계속해서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 종료 워크숍 제안 및 권고사항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관련해 마양제 지역의 (주인)의식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는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의 발전을 계속 지지하며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함께할 협력기관과 추가 지원을 계속 모색할 예정이다. 부게세라 구역은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및 마양제 지역사회와 협력해 기술 조사를 진행하고 목공, 미용, 호텔 운영, 배관 및 건설 분야의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 기금을 마련할 것을 권고받았다.

원활한 협력을 통해 진행된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의 경험과 성공 사례를 고려할 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구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될 협력기관일 것이다.

## 5. 교훈

지역학습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이 국가의 교육정책과 일치하게 되면 학습자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브릿지 지역학습센터는 영유아발달 수업, 성인문해 수업, 직업교육훈련 등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협력국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는 교육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찾아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기능을 하는 브릿지 국가위원회(Bridge National Committee)에 초빙해야 한다.

브릿지 국가위원회는 교과과정을 수립하고 도서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역학습센터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브릿지 국가위원회 위원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학습센터가 지역사회에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모니터링한다. 브릿지 국가위원회는 지역학습센터와 국가 교육시스템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역학습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이 국가 교육과정과 일치하면 학습자는 국가 자격을 취득하고 형식교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므로 센터의 프로그램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문해교육, 영유아발달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지역 주민은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VI. 감사의 말씀

### 1.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사무총장의 메시지와 평가



알버트 무테사 사무총장

먼저,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과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통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두 국가위원회 간의 유익한 협력과 파트너십은 2010년부터 계속되어왔습니다. 르완다에서 마을 단위의 다양한 교육 프로젝트에 한국 활동가들을 배치하는 것부터 시작해, 2005년에는 2,600권의 교과서를 제작해 동부지역 가치보 구역의 여러 교육 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마을 단위 지역학습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양자 협정이 체결되면서,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르완다 교육 시스템은 농촌 인구에 더욱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촌 지역의 남성과 여성, 그리고 특히 아동의 더 밝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017년, 우리는 북쪽의 키갈리(Kigali) 및 남쪽의 부룬디(Burundi)와 인접한 르완다의 남쪽 국경 근처 부게세라 구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카부무에 새로운 지역학습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규 지역학습센터는 키냐르완다(Kinyarwanda)어로 "빛" 또는 "빛나다"를 의미하는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로 명명되었습니다. 즉 우루무리는 카부무와 부게세라의 아동과 성인에게 빛을 선사한다는 우리의 사명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사명의 일환으로, 영유아발달 수업 교실 3개, 성인문해 수업 교실 1개, 직업교육훈련용 재단시설을完비한 교실 1개를 갖춘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 설립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2018년 2월 공사가 시작되었고, 2018년 10월 멋진 개소식과 함께 새로운 지역학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친애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께서 우리 센터의 개소식에 참석해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광호 사무총장님과 르완다에서 보낸 일주일의 양국의 관계 증진 및 향후 협력 확대를 논의하는 멋진 기회였습니다.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는 2018년 가을에 공식적으로 개소했지만, 마을 주민들은 개소 1년 전부터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2017년 8월에는 임시 운영 센터를 개소해 120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3개의 영유아발달 수업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공식 개소식 후 두 달 만에 50명의 학습자에게 최초로 성인문해 수업을 시작했고, 2019년 봄부터는 50명이 재단 수업을 수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두 국가위원회 간의, 그리고 양국 간의 성공적인 협력관계는 부게세라 주민들의 교육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확신하고, 앞으로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가 성장, 발전, 확장하며 참여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간의 양자 협력은 교육을 개선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 및 기타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화 간, 국가 간 협력의 이점을 보여주는 훌륭하고 구체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많은 자원봉사자, 프로젝트 매니저 및 파트너들의 참여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을 통해 농촌 지역 주민들의 미래를 개선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그분들의 헌신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의 메시지



김광호 사무총장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된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는 교육을 통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한다는 유네스코의 목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의 양해각서가 종료됨에 따라 이제부터 르완다는 이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프로젝트의 중요한 시기에 그 성과 달성을 위해 유망하고 지속가능한 조치를 개발하고, 실행해 온 정부 내 관련 당국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르완다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와 르완다 국민을 대신해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그리고 한국 국민들께서 르완다를 지원해주시고 우리가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브릿지 르완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으며, 카부무 마을과 부게세라 구역민들뿐만 아니라 이 멋진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인 활동가 6명과 프로젝트 매니저 3명이 현지인들의 문화와 교육 수요를 이해하기 위해 프로젝트가 시행된 르완다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 지역의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르완다의 사람들과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는 시작된 이래 지역사회와 정부,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협력국들 간에 많은 다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8년이 넘게 발전을 거듭해왔고, 이러한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가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 서비스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이번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두 국가위원회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졌기를 희망합니다.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에 보내주신 모든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엄청난 헌신과 노력을 기울인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에도 특별히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말을 전하며, 행운을 빕니다.

## ◆ 부록

### 1. 브릿지 프로젝트 활동가 및 프로젝트 매니저 명단

이름	직책	활동기간
박준권	프로젝트 활동가	2010년 8월 - 2011년 3월
임정아	프로젝트 활동가	2010년 8월 - 2011년 3월
오지희	프로젝트 활동가	2010년 8월 - 2011년 3월
전영진	프로젝트 활동가	2013년 8월 - 2013년 12월
김은정	프로젝트 활동가	2013년 8월 - 2013년 12월
선연희	프로젝트 매니저	2014년 5월 - 2015년 11월
이보배	프로젝트 매니저	2016년 4월 - 2017년 3월
김은하	프로젝트 매니저	2017년 3월 - 2018년 1월
문지영	프로젝트 매니저	2018년 1월 - 2018년 12월
아폴리네르 루바이자 므피지(르완다인)	현지 프로젝트 매니저	2019년 2월 - 2019년 4월

## 2. 인터뷰 및 현지의 목소리

### i. 인터뷰 - 프로젝트 매니저 선연희 (아카주바)

프로젝트 매니저  
선연희 (아카주바)



Q.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Muraho! Amakuru yawe). 제 이름은 선연희 (Akazuba)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르완다에서 2년간 성인문해교육 활동가로 일하며 동부지역 가치보 구역 키라무주리 지구에서 교과서 보급과 성인을 가르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Q.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A. 저는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었지만,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 활동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몇몇 아프리카 국가의 오지 마을에서 교육사업과 연관된 구체적 임무를 수행할 활동가를 모집하고 있다는 공고문을 보고 큰 흥미를 갖게 된 저는 2014년에 이 프로그램에 주저없이 응모해 합격했습니다.

Q.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A.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80세의 르완다 남성인 카고로라 안트완(Kagorora Antoine) 씨입니다. 젊었을 적 운전기사로 일했지만 이후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었다는 카고로라씨는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 교회에서 키냐르완다(Kinyarwanda)어를 공부했습니다. 교회는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있었고, 저도 키냐르완다어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카고로라씨와 같은 수업을 들었습니다. 카고로라씨는 늘 정시에 출석했는데, 어느 날 멀리서 불편하게 걷는 그를 보고 도움이 필요할까 싶어 다가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쭙보았습니다. 그는 말라리아에 걸렸으면서 병원 의사를 찾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라면 아플 때 공부하지 않고

실 텐데, 저 분은 키냐르완다어를 공부하러 왔어, 하고 혼자 생각하며, 저는 키냐르완다어를 공부하는 것이 그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운전기사로 일했지만 젊었을 때 학교를 다니지 못해 읽을 줄 몰랐습니다. 읽지 못하면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무에 큰 장애가 되었고, 사고 후 그는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Q.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의 성과를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A. 가장 성공적인 수확은 마을의 교사와 학생 개개인의 삶에 찾아온 변화입니다. 키냐르완다어로 읽고 쓰는 법을 배운 학생들은 이제 남의 도움 없이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안내문과 표지판을 읽고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을 가르친 교사들 또한 자신들의 학생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 마을 모임이나 다른 장소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감 있게 말할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Q.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와 르완다 지역사회에 대해 한 말씀해주세요.

A.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와 르완다 지역사회의 이해심과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마을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르완다를 제 조국처럼 여기며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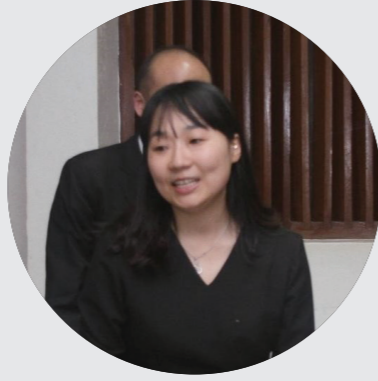
Q.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나 제안을 한다면?

A. 르완다 국민들을 지원해주셔서, 또 저에게 함께 일했던 사람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지원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기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에 늘 귀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항상 세계 시민의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ii. 인터뷰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 매니저  
문지영



Q.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A. 제 이름은 문지영입니다. 저는 2018년에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Q.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A. 저의 학업과 경력은 국제 개발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브릿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는 외국 정부나 정부 조직 내에서 직접 일한 경험이 없었기에,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및 기타 정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은 제게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2년 전 르완다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기도 해서, 환경이 그때와 조금 달라졌기는 해도 르완다에서 다시 일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Q.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아프리카의 다른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 함께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A. 2017년 8월부터 부게세라 구역 카부무 마을에서는 3-5세 아동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영유아발달 교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키냐르완다어와 영어 알파벳, 수학, 음악, 춤을 배웠습니다. 이 수업은 인기가 매우 높았고, 영유아발달 학교는 그 수는 매우 적은 반면 수요는 몹시 많았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부게세라 구역과 카부무 마을의 지도자 및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수업을 모니터링하고, 토론하고, 서로의 제안과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부관계자뿐만 아니라 현장의 마을 사람들과도 만남을 가지게 해 준 고무적인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프로젝트라는 느낌,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Q.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의 성과를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A.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및 부게세라 구역은 2016년부터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의 건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약간의 지연이 있었지만 지역학습센터는 2018년 10월에 마침내 완공되었고, 2018년 10월 23일에는 개회식을 위해 한국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표단, 주 르완다 대한민국 대사, 르완다 교육부 대표, 부게세라 시장 등 4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동료들의 헌신과 책임감이 없었다면 지역학습센터 건립 프로젝트가 불가능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제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은 매우 유익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이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한국과 르완다에 있는 동료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Q.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와 부게세라 지역사회에 한 말씀해주세요.

A. 먼저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에 협력과 지지를 보내주신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부게세라 지역, 르완다 교육부, 르완다 영유아발달 프로그램, 르완다 교육위원회 및 인력개발청 등 모든 협력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일하는 것이 저에게는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가 그 이름에 걸맞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빛을 선사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Q.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나 제안을 한다면?

A.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은 2010년에 시작되었고, 지난 9년간의 경험이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위한 굳건한 기초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양국의 국가위원회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개척하기를 바랍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동료들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iii. 조프리 무타간다(Geoffrey Mutaganda)씨의 감사의 말**

조프리 무타간다 씨는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 성인 문해 수업에 참석한 42세의 남성으로, 이 학습센터가 건설되기 전에는 학교에 다닐 기회를 갖지 못했었다. 그는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에서 기본적인 작문 및 읽기 능력을 습득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부게세라 구역 주민들을 위해 큰일을 해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크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성인문해 수업 덕분에 그는 이제 이름을 쓰고 숫자를 셀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삶은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의 설립으로 극적으로 바뀐 것이다. 조프리 씨는 브릿지 르완다 프로그램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iv. 무지란코니 델핀(Muzirankoni Delphine)씨의 감사의 말**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의 영유아발달 수업 교사인 무지란코니 델핀 씨는 말했다:

“우리 마을에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 센터가 생겨서 매우 기쁘고 흥분됩니다. 센터는 영유아발달 교육과 성인문해 및 재단 수업을 제공하는 등 우리 마을에 엄청난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센터를 통해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전에 먼저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여성은 직업 훈련을 받게 되어 가계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v. 알린 무자와마리아(Aline Mujawamariya)씨의 감사의 말**

알린 무자와마리아 씨는 아들 프랭크 무기샤(Frank Mugisha)를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 유치원에 보낸다. 그녀는 지역사회에 이 학교를 기부해 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큰 감사를 전하며 지역학습센터의 건립이 인근에 유치원이 없어 겪었던 부모들의 고충을 해결해주었다고 말했다. 이제 이 지역의 자녀들은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카부무 마을 부모들은 브릿지 르완다 프로그램의 사려깊은 지원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에서 수업 받는 아들 무기샤를 찾아온 어머니



**vi. 토마스 투이생게(Thomas Tuyisenge)씨의 감사의 말**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의 교사인 투이생게 씨는 말했다: “우리가 열악하고 낡은 교실에서 수업하던 시절 시작된 브릿지 프로젝트는, 마양제 지역의 영유아발달 수업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영유아발달 전문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에 취직하는 것을 도와준 전문 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투이생게 씨는 또한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의 건립이 적시에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옛 보육원으로 쓰던 허술한 건물이 혹시나 무너져내려 아이들과 교사들의 생명이 위험해 처할까봐 걱정되었음을 토로하며 투이생게 씨는 이렇게 말했다: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그리고 부게세라 구역의 엄청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 학교는 우리에게 교재, 좋은 시설, 사무실,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과 보조 학습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는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나아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석조, 건설 및 배관과 같은 다른 종류의 직업교육훈련의 도입을 추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의 파트너들은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센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모두와 한마음으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지역사회주민과 자녀의 혜택을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주민들은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에 최대한 기여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ii. 멜라니 무칸타가라(Melanie Mukantagara)씨의 감사의 말**

멜라니 무칸타가라 씨는 2018년 8월부터 센터의 청소부로 근무하고 있다.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 건설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무칸타가라 씨는 건설 자재를 현장으로 운반하는 일을 맡으며 공사에 참여했다. 그녀는 프로젝트가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더 나은 수입을 제공해, 아들 길버트 루쿤도(Gilbert Rukundo)의 학비를 버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센터에서 청소부로 일한 덕분에 그녀의 가족은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다. 아들은 비싼 교재비와 학비를 낼 필요 없이 학교에 다니고, 염소를 사고 건강보험에 등록할 수 있는 자금도 있다.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의 교육 발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viii. 진 두사비마나(Jeanne Dusabimana)씨의 감사의 말**

마양제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진 두사비마나 씨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의 관계자들은 우리 학교에 와서 아동의 취학전 교육과 학습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젝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곳에서 좋은 교실을 갖춘 건물로 이사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공감을 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전에는 학교까지 거리가 너무 멀거나, 부모의 적은 수입 때문에 수업료를 내기 어려워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가 활동을 확대해서, 예를 들어 이 장소에 초등학교가 세워지는 모습 등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ix. 마양제 지구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의 직업교육훈련 학생들**



①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수강하는 학생들  
 ② 재단수업을 수강한 학생들과 그 가족들은 직장을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